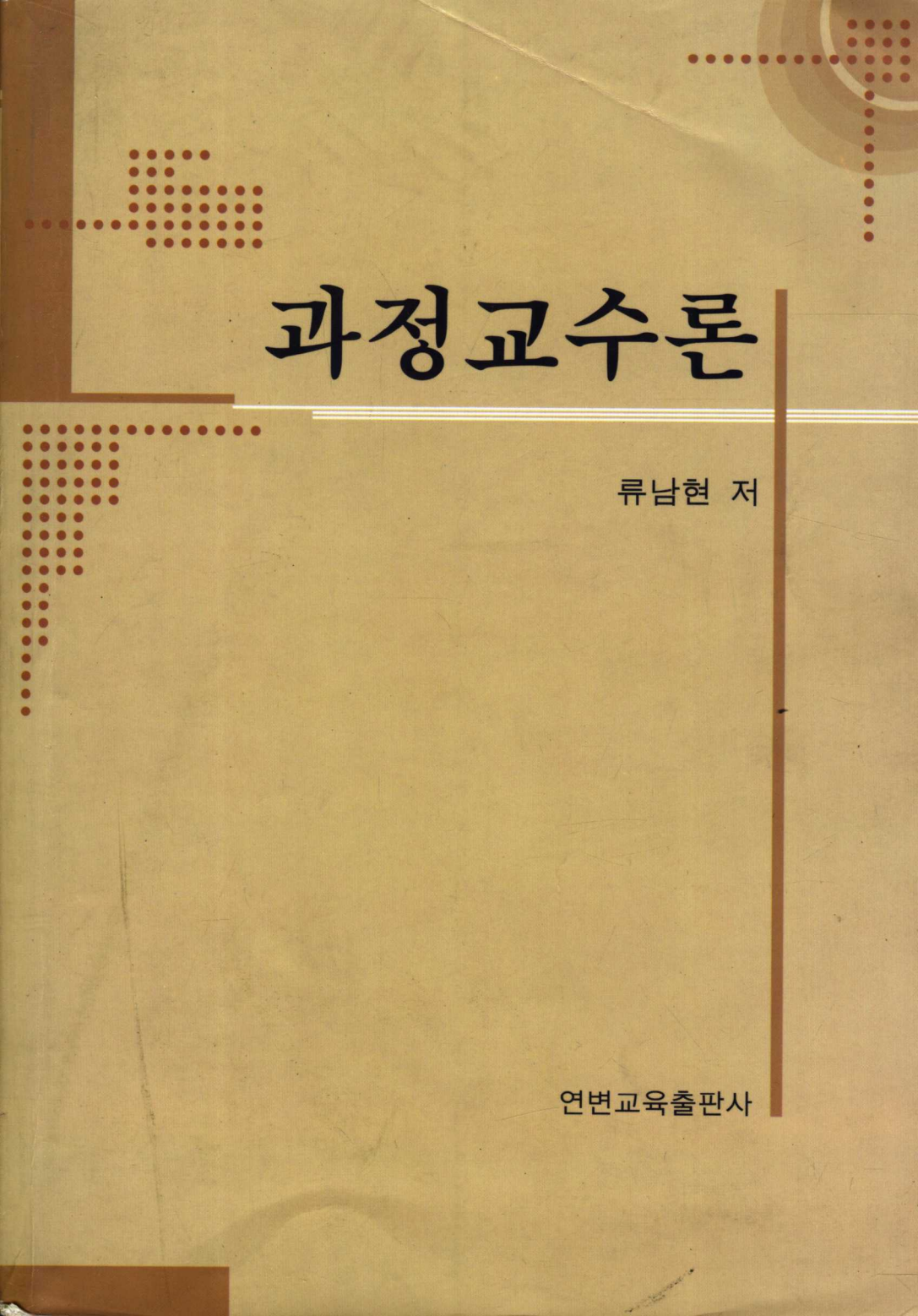




과정교수론

류남현 저

연변교육출판사

과정교수론

류남현 저

연변교육출판사

머 리 말

울밀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갑니다.
 가도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
 엄마엄마 찾으며 날아갑니다.

퇴직이란 어떤것인지 물랐으나 1997년 정년퇴직하면서 무리 떠난 기러기의 신세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윤복진 작사, 박해준 작곡으로 된 《가을밤》이 입에 오르게 되었다. 창문가에 서서 내다보는 저녁하늘이 좁아보이고 그러보는 여생도 락엽이 우수수하다.

이런 때에 버릇대로 책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달래었는데 《혁명적학습》이란 책이 나를 자극하였다. 《지금 증장되는 속도에 의하면 2025년이면 세계적으로 60세이상의 인구가 10억으로 상승하게 될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60세이상의 사람들을 <제3년령단계>라고 이름하며 <퇴직>이라고 하는데 <퇴직>이란 단어를 없애버려야 한다. 지금 65세는 하반생의 시작이지 말일의 시작이 아니다. 60세이상으로 되는 사람들이 미래교육에서 발굴하지 않은 자원의 대표로 된다.》는 말은 크게 나를 자극하여 꺼져가는 재불을 다시 불게 되었다. 따라서 장춘시 관성구조선족소학 교에서 교육, 교수 개혁의 고문으로 위촉받았고 미구에 연변교육출판사 교재연구센터의 사외연구원으로 초청받고 창의성교육실험에서 객원교수로 초청을 받으면서 하반생이 시작되었다. 일하던 사람에게 일을 주는만큼 고마운 일은 없다. 그후 동북삼성과 북경, 천진의 학교들을 드나들면서 많은 교수와 논문들을 보면

서 창해일속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였으며 조개껍질을 들고 바다의 비밀을 안다고 소리친 자신이 가소로왔다. 하여 금싸락 같은 선생님의 경험을 애써 모았는데 그것이 잘되든 못되든 간에 《과정교수론》으로 되었다.

《과정교수론》을 《하반생의 시작》으로 보면서 집필하였는데 내나름대로의 속생각이라면

첫째로, 199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8기4중전회에서 자질교육을 인재양성의 모식으로 확정하였고 이어서 새로운 과정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 실질과 요구와 지향적경향을 밝혀서 교원들의 교육, 교수 개혁과 과정개혁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둘째로, 교육기초리론의 변화와 과정개혁리론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밝히면서 인본주의교육리론의 실질을 명확히 하여 교육, 교수 개혁과 과정개혁의 리론적근거를 잡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셋째로, 되도록 국내외로 두각을 보인 력대의 교육학자들의 교육 리론과 주장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교육, 교수 개혁과 이어 놓고 우리에게 주는 계시를 밝혀서 교육, 교수 개혁의 궤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넷째로, 제2차세계대전이후의 국내외의 정체적변화와 함께 교육기초리론의 변화, 과정개혁범식의 변화, 교육리론연구방식의 변화 및 교수형태의 기본갈래를 밝혀서 우리의 교육, 교수를 세계적교육으로, 지향교육으로 개혁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였다.

다섯째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 교수를 돌이켜보면서 《단원교수》, 《자습교수》, 《비교교수》, 《창의성교수》 등을 지양적인 자세로 대하고 승화시켜서 우리의것으로 굳혀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글을 썼기에 교육기본리론, 과정리론 및 교수형태와 교수방식을 역사적으로 훑어내려가면서 그 변화를 밝히었고 되도록 우리의 교육, 교수에 이어놓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지향도 밝히었다.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느냐에 각광을 모으면서 집필하였다.

끝마치고도 개운하지 못한 일이 글을 쓰는 일인가본다. 지금 생각하여도 돌이킬수 없는 야속한 일이지만 수준의 제한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 닭이 날려고 애써도 매처럼 날수 없다는 말은 과연 옳은 말이다. 빗나갔거나 미흡한것이 많으리라 자인하면서 선생님들이 꺾고 다듬어주기를 소원한다.

사람의 성장에는 생명활력도 있어야 하나 뒤받침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심심히 느낀다. 이 글을 쓰기까지, 아니, 살아온 행정에서 항시 밀어주고 도와준 연변교육출판사의 지도부와 아껴준 선생님들 그리고 아껴준 벗들에게 고마움을 담아서 큰절을 올린다.

류 남 현

차 례

제1장 자질교육과 자질교육의 구성	1
제1절 자질교육의 대두	3
제2절 당대교육개혁의 특점과 자질교육	10
제3절 자질교육의 정의, 목적과 내용구성	16
제4절 자질교육의 이론기초	27
제5절 응시교육과 그 폐단	36
제2장 두뇌자원개발과 교수개혁	43
제1절 좌우뇌기능설과 교수개혁	44
제2절 변연정감설과 교수개혁	50
제3절 감각설, 뇌세포가지설과 교수개혁	58
제3장 심리자질과 교수개혁	67
제1절 지력, 비지력, 능력과 기능, 지식	68
제2절 지력의 인식활동형태	75
제3절 지력의 내화인식—인지활동	81
제4절 지력의 내화인식—혼상활동	89
제5절 지력의 외화인식—전이, 류화	98
제4장 선진적인 교육리론과 교육개혁이 주는 계시 ...	105
제1절 실증주의교육연구와 인본주의교육연구	107
제2절 《구조설》이 주는 계시	111
제3절 《신교수원칙》이 주는 계시	119

제4절	교수과정단계설이 주는 계시	129
제5절	도시(圖示)법이 주는 계시	140
제6절	학습동인설이 주는 계시	152
제5장	과정개혁과 교수개혁	161
제1절	신과정개혁의 필연성	163
제2절	과정개혁의 내포와 외연	171
제3절	과정개혁의 기본교수리론	177
제4절	과정내용선정의 기본준거	184
제5절	과정개혁에서의 과정설정	190
제6절	과정계획과 교재건설	196
제6장	교수형태와 교수과정	211
제1절	교수과정에서의 학생의 주체성	214
제2절	교수과정에서의 학생의 인식과정	224
제3절	교수과정의 구성	233
제7장	기본 교수 방법과 기법들	243
제1절	기본적인 교수방법	244
	전수형교수방법	247
	제시형교수방법	249
	자주형교수방법	253
	활동형교수방법	255
	대화형교수방법	257
	토론형교수방법	260
제2절	구체적인 교수기법	262
	정경창설의 기법	263
	인지정착점설정의 기법	266

지력인식활동의 기법	269
실마리추종의 기법	273
특징시각화기법	274
 제8장 과정개혁에 수용되는 교수형태	276
제1절 교수과정조직의 원리	279
제2절 종합실천활동교수	286
제3절 주제탐구성학습	294
제4절 합과교수	302
제5절 자주활동교수	308
제6절 범례교수	317
제7절 재발견법교수	323
제8절 창의성교육	330
 제9장 교수, 학습의 보상체제	352
제1절 학습성취에 대한 보상체제	353
제2절 시험, 고찰, 평정	360
제3절 출제의 근거와 구조	369
제4절 교수참관과 구성원의 역할	376
제5절 교수에 대한 평가	389
부록 1 교수담임교원의 교수의도설명	398
부록 2 지향성목표에 의한 부동한 수업평가방식	401
 제10장 교수조직	405
제1절 학급교수제도의 확립과 변화	407
제2절 학급교수제에 대한 부정과 재구성	413
제3절 학급학습조직의 형태	419

제4절	학급동보학습의 폐단과 개선	433
제5절	학급교수에서의 절주통제	440
제6절	학급학습에서의 개성적발전	451
제7절	학급학습에서의 심리적장애와 치유	460

제1장 자질교육과 자질교육의 구성

사람들은 너나없이 자기의 인생에 불만을 느끼고 살아온 세상에 불만을 느끼면서 그 희망을 다음 세대에 걸게 되고 다음에 이어질 미지의 세상에 밀어본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뚝아 살아가는 힘이며 교육에 눈길을 모으는 원인인가본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것이나, 무엇에 각광을 모으면서 키울것이나는 천하의 부모들이 앞자리에 놓고 생각하여보는 문제이며 후대를 전업으로 키워가는 교원과 교육사업일꾼들이 풀어나가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동서고금으로 여러가지 주장도 있었고 열편 쟁론도 있었으며 부정에 부정을 이어가면서 교육학과들을 형성하여 대렬을 이루기도 하였다.

근대이전의 학파라면 주요하게 두개의 학파를 말하여야 하는데 그 하나는 17세기 코메뉴스를 대표로 하는 《실질교육》학파이다. 이 학파는 지식전수에 각광을 모으면서 학생들의 자연적인 발전에 수용하여 교육을 추진시킬것을 주장하였다. 다른 하나는 18세기말, 19세기초에 이르는 페스타라치를 대표로 하는 《형식교육》파를 말하여야 한다. 《형식교육》학파는 《실질교육》학파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능력—사고력, 정조력, 기술력 양성에 각광을 모으면서 《기초교양》을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근대이후 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학파들이 대두되었으나 크게 따지면 세개의 학파를 말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전통파》이다.

헤르바르트를 대표로 하는 《전통파》는 《실질교육》학파의 주장을 발전시키면서 인류가 창조한 물질문명의 성취와 정신문명의 성취 즉 기성지식을 학파로 나누어 후대들에게 전수하고 수용시켜서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할것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상당히 긴 세월을 거쳐서 교육현장을 휩쓸어왔고 그 영향도 깊었다. 다른 하나는 듀이를 대표로 하는 《실용주의》(《진보파》라고도 함)학파이다. 《실용주의》학파는 《형식교육》학파의 주장을 이어서 발전시키면서 《전통파》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사람은 사회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속에서 작용하며 살아간다. 그러하기에 《관계》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작용》가운데서 경험과 체험을 쌓아서 생존함을 배우고 발전함을 배우는것이 교육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는중에서 배우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다음 하나는 《통정통합》학파이다. 그들은 《세기를 초월하는 지식》을 전수하여 내화시키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루적시켜 바람직한 인재를 양성할것을 주장하였다. 당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20세기 40년대,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파》의 주장도 실용주의학파의 주장도 《통정통합》학파의 주장도 크게 흔들리면서 새로운 세가지 학파가 대두되었다. 그 하나는 구소련의 잔코브를 대표로 하는 《신교육체계》학파이다. 이들은 지능, 정감, 의지, 성격 등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심리발전에 음악, 미술, 언어, 기계 등에 걸치는 특수재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것을 주장하였다. 다음 하나는 미국 부르노를 대표로 하는 《구조과정》학파이다. 이들은 과정은 학파를 중심으로 하고 그 학파의 기본적인 구조—기본개념, 기본원리, 법칙들사이의 내재적연관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다음 하나는 서부독일 전서인을 대표로 하는 《법제교수》학파이다.

중국은 중국식대로의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있다. 20세기 70년대에 《기초지식, 기본기능 교수》를 주장하였고 80년대에는 《지

능교육》을 창도하였으며 90년대에는 자질교육을 주장하고있다. 자연소질을 바탕으로 하고 심리자질을 매개로 하여 사회문화적자질을 높여서 학생들의 《실질력량》을 높여줄것을 주장하고있다. 새롭게 창도되는 자질교육은 지식형교육에 물젖은 우리로 말하면 생소한것이며 생소한것이다. 그러하기에 제1장에서는 자질교육의 대두와 함께 자질교육이란 무엇이며 자질교육의 목적과 내용 구성은 어떠하며 자질교육과 응시교육은 어떻게 다른가를 제너름대로 천명하고 밝혀서 리해의 실마리를 가려내는데에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다. 장기간에 걸쳐서 굳어진 사회본위주의교육리념에서 해탈하여 인본주의교육리념으로 전향하는데 도움을 주고 전통적인 지식형교수에서 해탈하여 자질교육으로 전향하는데에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다.

제1절 자질교육의 대두

지난 20세기는 풍운의 변화가 그 어느 세기보다 심하였던 세기로서 그 변화만큼 사람들의 의식도 크게 변하여왔다. 특히 전쟁보다 평화를 갈망하면서, 군비확장보다 종합국력의 경쟁을 중시하면서, 령토의 재분할보다 인재의 재분배를 내다보면서 교육에 이목을 집중하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쳐왔다. 발달한 나라와 선각한 나라들에서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부단히 교육을 개혁하고 개선하여왔다. 이 개혁과 개선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두 시대적, 국가적, 지향적인 특색을 짙게 구비하고있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이후로부터 그러하였다. 20세기 40년대에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파쇼교육을 민주교육으로 전변시켰으며 50년대에는 국내교육을 국제교육으로, 지식형교육을 지능교육으

로 전변시켰으며 80년대에는 당대교육을 지향교육으로, 지능교육을 인본주의교육으로 전변시켰다. 20세기 70년대 인성교육리론이 대두되고 80년대에 인본주의교육리론이 대두되면서 세계 교육개혁은 하나의 높은 마루를 이루게 되었다. 1988년 영국에서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였고 1989년에 프랑스에서 《교육개혁지도법》을, 1990년 일본에서는 《중신교육진흥법》을, 1992년 로씨야에서는 《로씨야교육법》을, 1994년 미국에서는 《2000년교육목표법》을, 1995년 중국에서는 《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개혁을 심화시켰다.

이 교육개혁에서 두가지의 보편적인 경향을 보아낼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교육, 교수 개혁의 일부 근본적인 문제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놓고 열띤 쟁론을 지속하는 경향성이다. 헤르바르트(독일사람, 1776년—1841년)를 대표로 하는 《전통파》와 듀이(미국사람, 1889년—1952년)를 대표로 하는 《진보파》사이의 대결이 20세기이전에 있었으나 그 두 파가 대결을 이룬 주요한 관점들은 20세기이후의 교육개혁에서도 쟁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1. 학교교육에서 군체적발전을 앞세우고 목표를 세우느냐, 아니면 개성발전을 앞세우고 목표를 세우느냐가 쟁론의 하나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이 쟁론은 교육의 근본적인 리론과 리념에 대한 쟁론으로서 실질은 공리주의 교육 리론, 리념에 뿌리를 내리고 교육, 교수를 개혁, 개선하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교육, 교수를 개혁,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20세기초 전쟁과 계급투쟁의 도구로 강화된 교육은 필연적으로 공리주의를 리론기초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는 교육을 제 면모, 본래의 면모로 돌려세워 인본주의를 창도하는것이 주류로 되게 하였다.

2.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적인 능력배양을 주요한 임무로 하느냐가 또 하나의 쟁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이 쟁론은 교수내용에 대한 쟁론으로서 과정개혁의 실질적내용으로 되게 되고 그것이 교과서편찬에서 체현되게 된다. 지금의 정황으로 보면 지식, 지력, 비지력, 능력을 전면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으로 입을 모으고있다.

3. 학교교육에서 실내수업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실천을 위주로 하느냐가 쟁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이 쟁론은 위에서 말한 쟁론과 이어지는것으로서 실질은 서책지식을 앞세우고 교육, 교수의 기본경로를 확정하느냐, 아니면 경험루적을 앞세우고 교육, 교수의 기본경로를 확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금의 정황으로 보면 학급을 사회의 축소판으로 개혁하면서 서책지식과 실천지식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실내수업과 사회실천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것이 경향적인 추향으로 되고있다.

4. 학교교수에서 교원이 주체로 되느냐, 아니면 학생이 주체로 되느냐가 쟁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이 쟁론은 교수과정의 기본구성과 관계되는 쟁론으로서 《교원중심》의 교수과정구성을 이루느냐, 아니면 학생주체의 교수과정구성을 이루느냐가 실질적인 분기로 되고있다. 지금 이 분기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교원의 조력밑에 학생들이 인식의 주체로 되어 자주적인식활동을 벌려나가는것이 합리하다고 의견을 같이하고있다.

5. 학교교육에서 경쟁성교육책략을 점철시키느냐, 아니면 협동성교육책략을 점철시키느냐가 쟁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이 쟁론은 교육, 교수 구성원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실질상 개인주의의식을 조장시키느냐, 아니면 협동의식을 양성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파괴한다는 서방교육계의 견해와 함께 열려져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쟁성교육책략을 비난하

면서 협동성교육책략을 긍정하는 추향을 보이고있다.

다른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은 인본주의교육리론이 많은 나라들에서 입을 모아서 공인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구소련은 제2차세계대전 전후로 3차례의 교육개혁을 진행하였으며 미국은 건국이래 4차례의 교육개혁을 진행하였는데 이 교육개혁마다에서 분기되고 논쟁을 벌린것이 상술한 다섯가지였다. 다섯가지가운데서도 사회본위주의(공리주의)교육리론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을 개혁, 개선하느냐, 아니면 학생본위주의(인본주의)교육리론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을 개혁, 개선하느냐와 지식전수를 기본임무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능력배양을 기본적인 임무로 하느냐가 근간적인 초점을 이루어 엇갈리는 의견이 오고갔다. 대별하여보면 20세기 50~60년대까지 구소련과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지식형교수를 추진시켜 결과적으로 개성발전을 저해하였고 사회적응력을 하강시켰으며 주동성, 창의성을 압제하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타방 미국과 많은 나라들에서는 분과지식전수를 비난하면서 경험루적을 앞세우고 교원의 참여가 없는 학생자주활동을 창도하여왔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주의, 개인리기주의, 자유주의를 크게 조장시켜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는데에 이르렀다. 하여 20세기 70년대에 《인성중심》의 교육리론이 대두되었고 80년대에는 《인본주의》사조가 일게 되었다.

우리 중국의 교육개혁은 서방의 발달한 나라들이나 구소련의 교육개혁과는 달리 20세기 40년대로부터 말하여야 한다. 첫째로, 뒤늦게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하여야 한다. 서방 발달한 나라의 현대적교육개혁이 제1차세계대전 전후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 중국의 현대적교육개혁은 제2차세계대전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 차원이 낮은데로부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하여야 한다. 서방의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교육체

계에서 교육을 개혁하였다면 우리 중국에서는 반식민지, 반봉건의 교육을 뒤엎은 폐허우에서 신민주주의교육부터 시작하였다. 셋째로, 인위적인 정치운동의 피해가 절었다는것을 말하여야 한다. 《반우파투쟁》, 《문화대혁명》의 10년동란은 떨어진 우리 중국의 교육을 더욱 떨어지게 만들었다.

20세기 40년대에 우리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 교육을 뒤집어놓고 신민주주의교육을 시작하였다. 해방구의 경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신민주주의교육으로서의 자체의 교육체계를 미처 이루지 못하였다. 다른 한 방면, 세계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진영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진영으로 보면서 중국은 소련쪽에 기울어졌다. 하여 50년대는 소화교육을 펼치면서 자체의 교육을 준비하였다. 소련의 《6·3·3》학제를 받아들이고 분과교수제도를 받아들이고 카이로브의 공리주의교육리론과 형식방법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60년대에는 《문화대혁명》의 동란으로 하여 실제는 교육이 중단되었다. 하였다면 교육이 계급투쟁의 공구로 되어 교육을 파괴하는 일을 하였다. 우리 중국의 교육과 교육개혁은 20세기 70년대, 딱히는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3중전회로부터 시작된것이다. 문화과학지식을 부정한 《문화대혁명》의 길은 그늘에서 벗어나 실내수업을 강조하였으며 《기초지식, 기본기능 교수》를 강조하였다. 교육의 형태를 다시 이루고 교육질서를 바로잡았다. 기초지식은 전통교수에서 말하는 지식과는 다르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기본기능은 기초지식을 적용한 행위방식과 숙련된 행위를 말하는것으로 지식의 실용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지식형교육을 해탈하지 못하였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는 70년대까지 지식형교육을 지속하였다고 말한다. 20세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중국의 교육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1983년 등소평이 우리의 교육은 현대화에 낯을 돌리고 세계에 낯을 돌리고 미래에

낮을 돌려야 한다고 호소한후 세계 선진적 교육 이론과 경험이 크게 소개되었다. 구쑤런의 잔표브를 비롯하여 창도한 《신교육 체계》가 소개되고 쑤호물린스끼의 개성발전 이론과 경험이 소개되었으며 부르노의 구조학설과 재발전법교수가 소개되고 서부독 일 건서인의 《법제교수》도 소개되었다. 말하자면 50년대를 마무리 하여 두각을 보인 《3대학파》의 이론이 소개되면서 《단원교수》, 《자습교수》 등 새로운 교수실험과 함께 지능형교육이 대두 되기 시작하였다. 이론상, 실천상 지력—관찰력, 기억력, 사유력, 상상력을 높이는 일이 이목을 모으는 과제로 되었었다. 그러나 지식형교육의 뿌리가 깊고 거기에 응시교육이 살판침으로 하여 그렇다 할수 있는 형태를 이루지 못한채 90년대에 들어섰다. 90년대에는 한 방면으로 1985년 5월 등소평이 《교육사업을 참답게 틀어쥐어야 한다.》에서 로동자의 자질을 높일것을 강조 하면서부터 중공중앙에서 여러차례로 자질문제를 강조한 기초에서 교육방향을 확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 70년대에 대두된 《인성중심》의 과정론과 80년대에 대두된 《인본주의》 교육사조 그리고 《경험주의》교육의 영향이 컸다. 하여 1983년에 등소평이 《세가지에 낮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199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8기4중전회에서 《인재양성의 모식을 개혁하여 응시교육을 자질교육으로 전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자질교육을 법적으로 승인한것으로 된다. 1999년 6월 13일에 《교육개혁을 심화시켜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하였는데 이때로부터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대두시키고 추진시키는 것이 중국에서의 교육개혁의 주선물로 되었다.

교육력사를 소급하여보면 자질교육은 중국에서 처음 제출한 것이다. 지식형교육, 경험형교육, 합파형교육, 광역교육합과군 교육, 구조형교육, 법제형교육, 교육신체제 등 교육형태들이 나